"농사는 정성" 지난 28일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김충호(52)씨의 밭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나온 조선대 학생들이 고추를 심고 있다. 잡초만 무성했던 밭이 대학생들의 손길을 거쳐 고추밭으로 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대학생 농활 현장

젊은 일손…농촌들녘 모처럼 활기

고추모종 심으며 어려운 농촌 현실 체험

"농사일은 처음이지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습니다. 농촌 현실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우는 농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오전 11시께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김충호(52)씨의 밭. 왕복 2차선 도로와 야트막한 동산 사이에 자리한 김씨의 밭(2500평·8천264m²)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방학을 맞아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 대여섯 명이 김씨의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벼와 콩, 고추 농사를 짓는 김씨는 고추를 남들보다 한 달가량 늦게 심고 있었다. 7년 전 국제결혼한 딸을 보러 넉 달 전 김씨의 집을 찾은 장모(75·우즈베키스탄)가 풍토가 맞지 않아 한 달째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부인(30)이 밭일을 거들지 못해 고추농사가 늦어진 것이다.

이웃들은 고추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김씨는 지금이라도 고추 농사에 정성을 들인다면 한 달 뒤부터 두 달 동안은 고추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학생들을 반겼다.

김씨는 "벼는 기계로 적당히 심지만 밭일은 모든 게 다 수작업"이라며 "가뜩이나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농사일보다 비교적 쉬운 '희망근로 사업'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고추 심을 인부를 구하지 못해 늦어졌다"고 말했다.

농사를 모르는 대학생들을 일일이 가르치며 고추를 심는 김씨의 얼굴엔, 뒤늦게 나마 학생들의 도움으로 고추를 심을 수 있다는 안도와 학생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한 고마움, 그리고 '만년 본전치기 농사'라는 그늘이 교차했다.

순천에서 나고 자라 밭일은 처음이라는 학생 황규용(20)씨는 "마을 회관에 머물면서 해 뜨면 일 나가고, 어두워지면 돌아오고 있다"며 "많은 학생이 함께 와서 마을 청소며 농사일이며 많이 도와야 하는데 너무 적게 와서 어른들께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법과대학 새내기 한지훈(20)씨는 "봄 농활에 이어 2번째인 여름 농활 동안 어르신들께 폐 끼치지 않으려고 7천 원씩 참가비를 걷어 생필품을 준비해왔다"며 "농촌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고, 돕는 게 이번 농활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박희재(24)씨는 "취업난과 경제난이 맞물린데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시되는 세태 속에 학생들의 농활 참여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더구나 기업을 비롯해 사업체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농활을 비롯한 봉사활동 경력 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400여 명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주와 화순, 영암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농민의 일손을 돕는 한편 농촌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여름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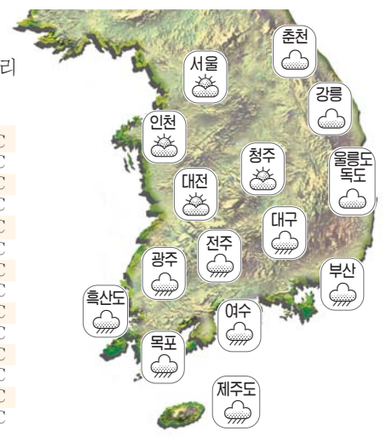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13시 28분 / 달짐 00시 05분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6℃
목 포	흐리고 비	22/24℃
여 수	흐리고 비	22/24℃
완 도	흐리고 비	22/24℃
구 례	흐리고 비	22/26℃
해 남	흐리고 비	22/24℃
장 흥	흐리고 비	22/24℃
고 흥	흐리고 비	21/25℃
순 천	흐리고 비	22/24℃
영 광	흐리고 비	22/27℃
진 도	흐리고 비	22/24℃
전 주	흐리고 비	22/24℃
남 원	흐리고 비	21/27℃
흑산도	흐리고 비	20/22℃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0~2.5m

	밀물	썰물
목포	07:49	00:38
	20:39	13:15
여수	02:24	08:52
	15:40	21: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 씨						
최저/최고	21/29	21/29	20/29	20/31	21/32	21/32

선진교통문화 '시동'

광주 범시민운동본부 오늘 출범

광주지역 교통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시민기구가 30일 공식 출범한다.

광주의 민·관·정·재계 대표와 시민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광주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연다.

각계 단체들과 시민 등이 총망라된 운동본부는 교통시설 및 제도 개선, 교육·홍보, 계도·단속 등 3대 분야에서 대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단체는 또 상임대표인 김양균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비롯, 각계 단체 대표 40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산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집행위원단'을 조직하는 등 광주의 단일 시민운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영렬 광주지검장,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 19명이 명예고문으로, 고제철 광주범죄예방위자문위 회장 등 10명이 고문으로 추대된다.

이번 운동본부 출범은 4년째 '교통사고 전국 1위 도시'에 머물러있는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6.4건으로, 전국 평균(105.4건)의 1.5배에 달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무위사 후불벽화·송광사 화엄탱 국보 된다

문화재청, 승격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보물 제1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 보물 제1366호 '순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보물 제200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석불'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3건을 국보로 승격 지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문화재들은 국보 승격과 함께 각각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로 지정 명칭이 변경된다.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무위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 불단 후불 벽면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도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지장보살 등을 배치했으며 조선 초기 불화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며 빼어난 필력과 조화로운 색채감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의 대표 불화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방과후학교 예비교사 회원 모집

한국방과후학교교사연합회

광주·전남 7월 6일 설명회

한국방과후학교교사연합회(회장 이기주)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 예비교사 회원을 모집한다. 또 7월부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방과후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29일 한국방과후학교교사연합회(www.ikasta.or.kr)에 따르면 7월부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세미나와 전국 지부 및 지원센터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역 세미나와 설명회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204호실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당일 참석도 가능하다.

연합회는 또 방과후학교 예비교사 회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대학 졸업자이며, 회비는 전액 면제된다. 일정기간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각 학교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월 수입은 주 5일, 1일 4교시 수업을 기준으로 200만원 안팎이며, 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방과후학교교사연합회는 방과후학교 교사의 권익대변 및 보호,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교사 양성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여는 희망교육을 창조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장관상 수상

여성주간 기념 정부포상

광주시 북구가 최근 여성부에서 실시한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평가에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다.

북구는 이주여성 결연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 등 사회통합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양성평등을 촉진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 주부 명예기자 등 여성의 구정참여에 크게 기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